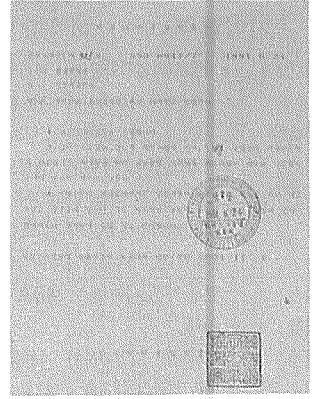


#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가전업계 의견 건의



'91. 6. 19 상공부, 환경청 건의

## 1. 가전제품이 환경위해성이 큰품목으로 선정된 기준의 의문제기

- 가. 가전제품중의 어떤물질이 2차오염 내지 독성물질을 함유, 위해도를 나타내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분명치 않음.
- 나. 내부 부속품에 미량의 납성분이 들어있으나 자연계에서 가장 안전한 고체 납 형태로 매립시 용출성분이 없어 특성유해 물질에도 해당되지 않음.

## 2. 폐기물 예치금제 요율 조정요망

- 가. 가전제품에 다량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류 (원료 : Polystyrene,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의 원료인 PS, ABS는 합성수지로서 현재 폐기물 비용을 부과하고 있음으로(현재 : 매출가의 7/1000부담) 적용요율을 낮추어 줄 것을 요망.
- 나.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 부품세척, 단열재 발포 등에 사용하는 CFC(Chloro Fluoro C obons)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됨에 따라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에 관한 법률'(법률 제4322호, '91. 1. 14)에 의거 '92. 1. 1부터 가전업체가 연간 850억원 상당을 부담(직수입, 국내조달)하게 되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CFC 소비량

CFC류 연소비량	가전업계 소비량	%
23,760톤	5,181톤	21.8

### \*구성품별 무게

(가전제품 공장실측 자료임)

구 성 품	냉장고(330L)		에어콘(7평형)	
	무게(kg)	%	무게(kg)	%
계	72.40	100	41.51	100
철 재 류	33.97	46.92	34.38	83
우 레 탄	5.71	8	0.11	0
냉 매	1.41	2	0.74	2
플라스틱류	29.30	40	5.6	13
기 타	2.01	3	0.67	2

- 3. 폐기물 예치금제도 실시시기가 너무 촉박하여 가전업계의 준비기간이 절대부족, 최소한 1년이상 유예기간이 필요함.

- 가. 제도의 시행취지가 자원의 재사용확대와 환경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인바, 업계가 적절한 대책을 갖을 수 있는 기간과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준비기간을 주어 관련자(정부, 업계, 소비자)가 충분히 연구검토 준비후 실시해야함이 시행착오를 막아 투자재원의 효율성 극대화과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기간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나. 수집, 운반, 처리 및 최종폐기를 위한 처리체계 연구(전문처리업체의 육성, 업계공동 처리기관 설립 등)와 운영인력 확보, 필요설비 설치, 매립장 확보 등의 준비가 되어야 함.
- 다. 유통시장 개방(91.7.1), 폐기물 예치금제(91.9.9), CFC기금조성(92.1.1) 등이 비슷한 시기에 시행될 예정으로 특히 가전업

계는 제품경쟁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행시기의 연기가 절실히 요구됨.

#### 4. 동제도의 시행에 앞서 관련업계와 사전 의견조정이 필요함

- 가.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검토중인 가전제품의 폐기물 예치금 방안은 제품의 원가상승, 소비자 부담가중 등을 고려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됨.
- 나. 선진국에서도 가전제품에 대해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여 또는 협조를 위한 유인책이 병행되지 않았으므로 효과가 의문시 됨.

## 웃고 삼시다.

### 학기말 시험

학기말 시험을 마치고 집에 온 딸에게 어머니가 시험을 잘 보았느냐고 물었다.

“에, 요번 시험은 잘 보았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 짝궁 성적이 나와 봐야 확실히 알 것 같아요.”

### 연 인

연인 두명이 데이트를 끝내고 공원에 나란히 앉았다. 여자가 ‘저 앉았어요. 할 말이 있는데 등 좀 빌려주세요’하고 남자 등에 쓴 것은 ‘당신을 사랑해요였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 등을 남자에게 슬며시 내밀었다. 달콤한 대답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남자가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지금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알 “지금, 오늘 너 만나 쓴 돈 계산하는 거야.”

### 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자고 있었다.

아들이 목이 마른지 일어나 주전자를 들어 물을 마시더니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다

잠들었다.

잠시후 아들이 다시 일어나 물을 마시곤 몸을 비틀며 난리를 피우다 잠들었다. 이를 보던 아버지가 ‘이놈이 분명 저 주전자 안에 있는 것 때문일 거야’ 하며 주전자를 들어 입에 벌척 쏟아부었다.

그리곤 아들과 똑같이 신음소리를 내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아들을 깨웠다.

“아, 임마 너 왜 아빠한테 물 뜨겁다고 얘기 안했어?”

### 식전에 먹을까요?

똥보 : 자꾸 살이 찌는데 걱정이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 : 지방질을 피하시고 하루 세번 빵만 드십시오.

똥보 : 저, 식전에 먹을까요? 식후에 먹을까요?

### 우체통

집배원 : 어휴 힘들어.

할머니 : 아니 여보시오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소?

집배원 : 건너 마을에 배달할 편지입니다요.

할머니 : 그 무거운 걸 왜 들고 다녀, 우체통에 넣으면 될 걸 가지고.